

'용산'은 비켜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1월 20일 밤을 기억한다. 하루 종일 남편이자 아버지인 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울부짖으며 발을 동동 구르던 유가족들을 기만하여 경찰서에 잡아놓은 사이에 검찰수사본부가 대규모로 꾸러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가족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부검하기에 이르렀다. 기자들을 통해 시신이 순천향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유가족들에게 절차를 이유로 시신 확인조차 못하게 막던 경찰들, 그리고 끝내 날을 넘겨 새벽에서야 참혹하게 불에 탄 시신을 확인하고는 혼절하던 유가족의 모습, 그 지옥 같던 밤을 잊을 수 없다.

용산 참사의 진정한 '배후'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던 의문은 그것이였다. 과연 남일당 건물 철거민들의 농성 진압 작전이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의 승인으로 진행되었을까? 최고책임자가 과연 서울경찰청장이었을까?

청와대는 사후에나 알았을까? 검찰의 대규모 수사본부도 검찰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꾸린 것일까?... 마치 철거용역업체 뒤에 재개발 조합이 있고, 그 뒤에 사실은 삼성물산 같은 건설자본이 웅크리고 앉아서 조종하고 있듯이, 검찰의 뒤에는, 경찰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철거 지역은 무법천지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다. 용산4구역도 마찬가지여서 덩치 큰 강패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모욕, 협박은 공포로 다가왔다. 그때마다 경찰은 너무 멀리 있거나 용역들의 편이었다. 덩치 큰 강패들에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철거민만 영업 방해니 폭행죄니, 협박죄니 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되기 일쑤다. 철거민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보호 해주지 않아도 좋은 '비국민'으로 취급되었다. 그런 끝에 철거민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 망루농성이었다. 그 방어용 망루에서 몇 달이고 버티다 보면 조합이 협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버티기로 작정하고 오른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었다. 대화를 하자며 폭력을 피해 올라간 그들에게 어떤 대화나 설득, 협상도 없이 무력으로 진압해 버린 게 용산 참사다.

장기화될 수 있는 농성을 단 하루만에 특공대까지 동원해 진압하는 초강도의 진압작전을 과연 경찰이 세울 수 있을까? 박종환 전임 경찰 종합학교 교장이 퇴임 인터뷰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찰의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섰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용산4구역에서는 3월 11일부터 야금야금 철거작업이 진행되었고, 다시 이 철거작업을 막다가 철거민들은 여전히 강패들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 연행된다. 용산4구역의 철거민들은 언제고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려 있다.

아직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그러므로 참사 100일이 넘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산4구역에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소박하지만 한 생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용산 참사를 겪은 이 와중에도 국회에서는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재개발 관련법들이 통과되었으니 말해 무엇하랴. 서울에만 뉴타운, 도심 재개발 사업 지역이 500군데가 넘고, 언제고 용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살인 개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묻는다. 이 지독하기만 전쟁에서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는가. 법은 늘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체계적인 국가폭력을 우리는 용산에서 본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무엇이 폭력인가. 전철연이 폭력집단인가. 그렇다면, 철거 현장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철거용역업체의 폭력은 왜 방치되어도 좋고,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폭력으로 매도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가.

다시 묻는다. 용산을 보고도 아직 이 나라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국가라는 착각 속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용산이란 이름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처럼 철저하게 짓밟혀도 되는지 묻고 싶다.

용산범대위가 하는 집회는 100일 동안 다 한 건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모제를 치른 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수배되는 이 현실을 해명해 보라.

그래서 '용산'은 비켜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사람 목숨 여섯이나 희생된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흑자는 말한다. 먼저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나도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 불안하기만 수배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라도 간절하게 장례를 치루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부님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매일 현장을 찾아 촛불을 들고, 돈을 모으고, 쌀과 김치를 보내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먼저 용산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대의 현실을 처절하게 증언하는 용산 문제로부터 비켜나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박래균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이 글은 프레시안 pressian.com 기획연재 "울부짖는 용산, 나는 묻는다"로 기고한 글을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함께합시다!

- * 매일 저녁 7시 촛불 미사와 추모제, 토요일 추모대회에 함께합니다.
 - * 유가족 돕기와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니다.
- 모금계좌 :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중회)

"용산지킴이"가 되어주십시오!!

고 이상림 열사, 고 양희성 열사의 딸과 혼이 담긴 삶과 생존의 공간인 '메아호프'와 '삼호복집' 등 용산 4구역을 지켜내야 합니다. 5월 중순이후, 열사들의 가게를 포함한 용산4구역에 대한 명도 집행과 철거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살인진압 100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공간이 명도와 철거가 진행 된다면, 유가족들은 열사들의 흔적조차 지우지 못한 곳에서 쫓겨나 그야말로 거리로 내 앉아야 합니다.

용산참사 해결없이, 열사들과 유족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개발이득에만 혈안이된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용산 열사들의 공간을 지키는 "용산 지킴이"에 참여해주십시오!!

[용산 지킴이] 행동.제.안.

하나. 가능 시간마다 현장에 결함 합니다!

(오전 지킴이 10시, 오후 지킴이 2시, 저녁 지킴이 7시까지. 현장으로!)

하나. 명도가 집행되면, 모든일을 내려놓고 용산현장으로 달려옵니다!

문의 > 02-795-1444 / mbout@jinbo.net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1000인 농성의 날 에 함께해 주세요!

5월 16일(토) / 용산참사현장 및 서울도심



지난 4월22일부터, 용산참사 유가족과 범대위 대표자들의
참사현장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성장 지지방문 및 하루농성에 결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간 및 프로그램 추후공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